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진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장성군민 모바일로 건강 챙긴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호응 높아 올해도 60명 대상 지속 추진 예정

장성군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보건소 의료진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과 공복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나타난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모바일을 통해 일상생활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신개념 의료서비스다.

장성군보건소는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한 농어촌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공중보건,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진이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사업을 벌였다.



의료진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활동량계도 제공하고, 메시지가 개별 연락을 통해 헬스케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식사습관 및 운동 등을 통한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팀을 꾸준히 권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가 건강행태는 1개 이상 개선되고 건강위험요인도 1개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총 60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해 59명이 헬스케어 사업을 완료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왔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건강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유용한 건강관리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준 것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오는 5월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60명을 모집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결과 질환 단계에 있는 성인 중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순안의 모바일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전문 의료진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의료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보성군, 지난해 농특산물 총 46억 원 판매

국내 18억 원 · 해외 수출 28억 원의 실적 거둬

보성군은 지난해 농특산물 판매 총 다양화로 총 46억 원의 국내외 판매실적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에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관리 및 보증에 심혈을 기울여 18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해외에는 마케팅 및 판촉활동 다양화로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14개국에 28억 원의 수출 실적을 냈다.

국내 실적으로는 동아차·공예 박람회 등 차 관련 각종 박람회에 17회, 89개 업체 참가로 3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울산 남구 등 12개 자매·우호 도시에 1억4천만 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직거래장터 등에 1억 7천만 원, 가락물 팔도 농특산물 및 용산역 보성농자 홍보 판매관, 여주 퍼블리마켓 등 대도시 상설 판매장 운영에 1억 5천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5월 오픈한 인터넷쇼핑

몰 ‘보성풀’을 이용해 계절 농산물의 특관행사와 기획판매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4천5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보성물과 연계한 우체국 전자상거래로 8억4천5백만 원의 성과를 냈다.

또한, 군 공직자의 ‘보성쌀 팔아주기’로 1억 원의 판매실적을 내는 등 공무원, 농가, 관련단체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힘을 모으며 이뤄낸 성과이다.

해외 수출은 군의 대표 특산물인 녹차, 찹다래, 꼬막 등 10개 품목을 14개국에 1,062톤의 물량을 수출해 28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찹다래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일본, 홍콩 등에 12억 원의 실적을 냈으며, 벌교꼬막 통조림은 미국에 7억 원, 녹차와 홍차 등 차 제품은 미국, 중국 등에 2억 원, 단호박은 일본에 4억 원, 기타 잡곡, 채소, 가공식품은 3억 원의 실적을 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

신안군은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新安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 061-240-8329)도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2일 이후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또한 자동차세 연납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소유권이전일이나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집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영광군, 대기오염 측정장비 설치한다

총 1억9천5백만원 투입 올 상반기까지 완료 계획

영광군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 상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영광군은 국비 9천7백 5십 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을 투입, 정확한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기오

염 측정망을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할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수집되는 미세먼지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황산가스 등 대기질 정보를 옥외전광판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대기질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대기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환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구축되면 군민들에게 지역의 좀 더 정확한 대기질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농업인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함평군은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정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행사엔 (사)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 연합회(회장 이경주)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정시책 홍보, FTA 대응기술 교육 등 핵심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경주 회장은 “작년 한해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며 올해도 함평농업 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선도농업인 역할을 다해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 잘 사는 농업인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안병호 군수는 지역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연합회와 회원들을 격려하며 “올해도 군민과 지역발전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와 함께 함평군민의 복지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는 지난해 농산물 교류사업 사랑의 김치나눔 프로젝트, 지역축제 참여 등 지역농업 발전과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고흥군,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접수

15일부터 ‘백세시대 생활터 금연 건강마을’ 운영



고흥군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접수를 받고 있으며 15일부터 ‘백세시대 생활터 금연 건강마을’을 11개 마을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여건상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금연 상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전문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작년 등록자 598명 중 359명이 금연에 성공하였다.

보건소는 6개월 동안 9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방문해 금연 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니코틴 검사)하고 최대 12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또한 금연교육과 필요한 경

우 행동 강화 물품도 지급해 6개월 후 니코틴반응검사(소변검사)를 거친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15일부터 시작하는 백세시대 생활터 금연건강 마을 프로그램은 중앙면 중앙경로당을 시작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백세시대 생활터 금연 건강마을 만들기 위해 금연상담사 및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16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담배의 해악 △담배의 사회적 폐해△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전자담배의 폐해 △शल버체조와 웃음체조 △뇌체조와 스트레칭 등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